

직접 만든 포스터·피켓 들고 참신한 공약 대결 선거비용 '0원'...아이들 선거는 축제였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임원선거 둘러보니

따·명함·교문앞 선거운동 금지 등 과열 자제
혼탁한 조합장 선거와 대조...어른들보다 낫네

“선거비용 0원, 포스터·피켓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불법·혼탁 선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달리, 초등학교 임원 선거는 학기초 또 하나의 축제였다.

때 아닌 한파에도 아랑곳 않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목청을 돋우는 자발적인 선거운동원, 학교에서 나눠준 도화지와 필기구로만 제작한 선거비용 0원의 홍보물, 과열을 막기 위한 교문 앞 선거운동 금지 등 불법·금품·과열 조합장 선거와는 달랐다. 선거 때만 되면 포스터 제작·지지 호스를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 했던 학부모들 부담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8시 광주시 남구 유안초등학교 교정. 이례적인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되는 등 매서운 추위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쳤지만 유세에 나선 아이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아이들은 5~6명씩 짝을 이뤄 “기호 8번! 기호 8번!”을 외치는가 하면, “10번 뽑으면 기가 산단! 기가 팍팍!” 등 각자 응원하는 후보를 위해 목청을 높였다. 후보 사진을 통한 홍보는 물론 유행어를 활용한 재미있는 문구의 피켓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안초는 선거포스터와 피켓만 허용했다. 후보자 ‘따’와 ‘명함’도 안 된다. 선거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선거운동기간은 5일이다. 혹시 학교밖 향을 제공을 우려해 주말·휴일이 끼지 않게 했다. 부모들이 아이들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했다. 후보 도움없이 선거용품을 만드는 등 학생들만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장초는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이 ‘0원’이다. 선거 포스터를 업체에 맡기는 대신 담담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에서 나눠준 도화지와 필기구

로 스스로 제작했다.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대성초도 올해부터 후보 포스터를 업체에 주문하는 것을 금지했다. 선거 포스터·피켓·명함·명찰 등 ‘선거패키지’를 제공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는 12만원을 웃도는 선거패키지 제작비가 부담돼 출마를 포기하는 일이 간혹 벌어지기 때문.

수장초 김승후(6년)군은 “예전엔 눈에 띄는 포스터를 보고 투표하기도 했었다”며 “이번엔 다 똑같아서 친구들이 내놓은 공약과 출마의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풍암초교도 포스터 제작을 학생들 스스로 하도록 권고했다. 학생들 스스로 포스터·피켓 제작 등을 하면서 판매 박힌 문구 외에 “지구는 파우렌인저가 지키듯 우리 학교는 내가 지킨다”는 특색 있는 지지 호소 문구는 더 많아졌다.

예전 학교 정문 앞에서 학자지결하게 했던 선거운동을 볼 수 없는 학교도 많아졌다. 특정 후보에 선거운동원이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 유세활동이 줄어들면, 교내 방송국에서 1분30초 간 생방송으로 출마의지와 공약 등 소견 발표를 하도록 바뀌었다.

대성초교는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대신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투표한다. 무효표가 없어지고 아이들도 보다 진지하게 투표에 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성초 박하늘(여·28) 교사는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아이들이 공약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시즌이다.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유안초교 앞에서 학생회장에게 출마한 후보와 지지 학생들이 각종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등교하는 학생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위> 대성초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어린이 후보자들의 개성이 담긴 선거 벽보들이 눈길을 끈다.

화물차 기사 “퇴선 지시 무전 못들었다”

세월호 항소심 3회 공판...“조타실 연락해도 응답 없어”

세월호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밤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혐의 입증 및 규명을 위해 야간 재판까지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 해운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쟁점 심리를 위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밤 늦도록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침몰 당시 세월호에 탄 화물차 기사 A씨는 조타실로부터 퇴선을 지시하는 무전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퇴선 지시 여부는 승객들에 대한 살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다.

A씨는 3층 안내데스크에서 승선 박지영씨 등 2명과 함께 있었고 박씨 등에게 조타실에 연락해보라고 요구해 지속적

으로 연락했지만 조타실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조타실에서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했다면 승무원들의 무전기에 동시에 전달돼 안내데스크 주변에서도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들었느냐”는 질문에 “못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앞서 세월호 침몰 당시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의 음질 개선을 통해 승무원들의 탈출 시점에도 선내에서 대기 방송이 나온 사실을 부각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 45분 37초~51초에 촬영된 영상에는 승무원 2명이 조타실 좌측 출입문에 모여 있는 다른 승무원들이 내려오기 편하도록 고무 신발을 건네주는 장면이 찍혔다. 세월호 외부 스피커를 통해 “현재 위치에 서 대기하시고...”라는 선내방송이 흘러 나온 것도 녹음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청장 사촌 조카 부탁 받고 불법건축물 사용허가

공무원 등 2명 불구속 입건

광주광산경찰은 10일 현지 구청장 사촌 조카의 부탁을 받고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을 조작,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준 혐의(공전자기특위작성)로 전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 A(50·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조카인 민모(45)씨의 교회(광산구 수완동) 불법건축기록을 구청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삭제해, 민씨가 해당 교회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불법 증축된 건물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씨는 A씨의 근무기간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민씨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여타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원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은 장성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납품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 특정 업체가 수년간 기자재를 독점 공급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연구원측의 특별프로젝트 및 기자재 납품 관련 서류를 확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 적발 급증

광주 11건·전남 89건 수사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사례 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건(2건)을 비롯, 12건이 접수돼 1건을 내사종결하고 11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조합장 선거관련 1건을 제외하면

모두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덧붙였다.

전남지방경찰청도 89건(농협 70건·수협 9건·산림조합 10건), 1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음 제공이 76명(62%)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20명(16%), 후보자 비방 등 9명(7%), 기타(농협법 위반) 17명(15%) 순이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부를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7평 - 20층 중 10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무등산 방향
- 전체 올수리, 즉시 입주
- 매매 - 5200만원
- 29평 - 20층 중 10층
- 양동 하천방향, 내부 깨끗
- 2015년 5월 입주
- 매매 - 7200만원

오피스텔 매매

문의 H. 010-3605-5000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18평 - 14층 중 13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대 방향
- 즉시 입주, 내부 깨끗
- 매매 - 3500만원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400만원

베스트 이비인후과 신우신협

신우APT 제5동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수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허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